

공격적 M&A로 'TOP 10'... 청년주택 등 올 1.4만가구

주택 건설, 飛上 2020 전략

호반건설

창사 이래 첫 10대 건설사 진입
최승남, 송종민 공동대표 체제로

수도권지역 도정사업 수주 성과
양재·불광역 청년주택 사업도



최승남 호반건설 부회장



송종민 호반건설 사장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건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대 건설사로 부상한 호반건설이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호반건설을 10대 건설사 반열에 올린 김상열 회장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다. 호반건설은 청년주택 사업에도 뛰어든 등 올해 1만446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호반건설은 올해부터 최승남 호반건설 부회장, 송종민 호반건설 사장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에서 10위로 6계단 뛰어올랐다. 계열사인 호반산업의 평가액(1조4976억원)까지 합치면 9위 규모다.

◆호반건설 10대 건설사 진입

지난 2018년 계열사 호반(옛 호반건설주택)을 인수·합병(M&A)한 호반건설은 올해 10위권 안에 처음 진입했다. 우수한 재무구조, (주택) 준공 물량 증가, 합병으로 인한 규모 증대 등이 반영

됐다는 평이다.

이런 상승세는 2010년대부터 시작된 김상열 회장의 공격적인 M&A 행보에 기인한다. 호반건설이 M&A 시장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지난 2015년 금호산업 인수전부터다.

그해 2월 호반건설은 금호산업 인수 의향서를 제출, 4월 단독으로 본 입찰에 나섰지만 시장의 예상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써내 유찰됐다. 금호산업은 결국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인수했다.

지난 2016년 5월 동부건설, 9월 보바스병원 인수 전에서도 호반건설은 인수의향서만 제출하고 본 입찰에는 불참했다.

2017년 SK증권 인수전에서도 호반건설의 인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지만 막판에 발을 뺐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 2018년 2월 이뤄진 대우건설 매

각이었다는 평이다. 당시 약 1조6000억원으로 평가받던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인수 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인수를 포기했다. 인수 포기 이유는 '해의 손실'이었다.

◆2020년 19개단지 1만4461가구 주택 공급

호반건설은 올해 아파트 18개 단지 1만446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총 5개 단지가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마수결이 단지는 '호반써밋 고덕신도시2(가칭)'가 유력하다. 이 단지는 총 766가구를 공급한다.

'호반써밋 목동', '시화 MTV 공동 2블록', '당진수정지구 RH-1블록', '부산에조텔타 공동 7블록'도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13곳의 단지가 분양을 앞뒀다. '대전 용산지구 1-3블록', '아산탕정지구 D1-1~2블록', '아산탕정지구

D2-1', '광명 10R 구역', '아산탕정 D3-2블록', '서울 개봉 5구역', '위례 일상 9-1~2블록(오피스텔)', '오산 세교 2지구 A2블록', '인천 서구', '당진수정지구 RH-2블록'이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규모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591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단지는 7개다.

주요 단지로는 '송도 호반베르디움 5차'와 '청라 호반베르디움 6차'이었다. 송도 호반베르디움 5차는 2671가구, 청라 호반베르디움 6차는 210가구를 공급했다.

◆정비사업 '수주쟁탈전' 성공

재건축·재개발에서도 성과가 나왔다. 청년주택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시장에 본격 진입, 수주 확대에 나섰다. 2018년 호반건설이 수주한 도정 사업장 중 80% 이상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단

지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 경기도 2곳이다.

서울에서는 '자양 12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봉 5구역 주택 재건축',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경기도에서는 '군포 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곡·도농 6-2구역 재개발' 등을 수주했다.

지난해에는 2곳의 사업장 시공권을 확보했다. 공사 규모는 1472가구, 수주 금액은 3400억원이다.

우선 지난해 '대구 내당대서 주택 재건축'을 수주했다. 362가구로 탈바꿈하는 이 사업장 총 공사비용은 700억원이다. 이어 '광주 계림 1구역 도시환경정비(1472가구, 2700억원)' 수주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서울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신반포 15차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아파트 8개동, 180가구,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6개 동, 641가구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한편 호반건설은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2곳의 청년주택 사업장을 수주했다. 지난 5월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지난 4월 '불광역 청년주택' 시공사로 선정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충청권 연내 40곳서 3.6만 가구 쏟아진다

대전 1.1만 가구, 충남 1.7만 가구 등
계룡시·금산·홍성군 등 분양 재개
세종시는 2012년 이후 물량 없어

올해 대전광역시 포함 충청권에서 3만6000여가구가 공급된다. 한동안 공급이 뜸했던 충남 계룡시와 금산군, 홍성군 등에서 분양이 재개된다. 반면 인기지역인 세종시는 2012년 조성 이후 분양물량이 단 한 가구도 없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내 충청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40개 단지 3만6093가구다. 지역별로는 ▲대전 12곳 1만1580가구 ▲충남 22곳 1만7653가구 ▲충북 6곳 6860가구 등이다.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대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분양이 호조를 보였다. 대전은 지난해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55.46대 1로 전국(지역별)에서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특

■충청권주요분양물량

충남 계룡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	대우건설	2월	883 가구
충남 금산	e편한세상 금산센터하임	삼호	2월	461 가구
대전광역시	대전둔곡지구 우미린(가칭)	우미건설	4월	760 가구
대전광역시	용문 더샵 리슈빌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11월	2,763 가구
충북 청주	청주 동남 파라곤	동양건설산업	3월	562 가구
충북 청주	청주 가경 아이파크5단지	현대산업개발	9월	965 가구

자료: 각 업체 및 부동산114



별시도 44.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은 집값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미분양 아파트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충청권의 미분양 물량은 2018년 1월 1만7070가구에서 2018년 12월 1만3506가구까지 줄었고 현재(19년 12월 기준) 7965가구로 1년새 5541가구나 감

소했다.

주요 단지로 대우건설은 이달 충남 계룡시 계룡대실지구 3블록에서 '계룡 푸르지오더퍼스트' 59㎡~84㎡, 883가구를 분양한다. 대실지구 내 최대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옆에 이케아(예정)가 들어서며, 중심상업지구(예정)도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다. KTX 계룡역

과 호남고속지선 계룡IC도 가깝다.

삼호는 이달 충남 금산군 중도리 188-48 일대에서 'e편한세상 금산 센터하임' 75~84㎡, 461가구를 분양한다. 우미건설은 오는 4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룡동 둔곡지구 3블록에서 '대전 둔곡지구 우미린(가칭)' 64~84㎡, 760가구를 분양한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은 오는 11월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5-9번지 일원에서 '용문 더샵 리슈빌(가칭)' 48~99㎡, 2763가구 중 190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가깝다.

동양건설산업은 오는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동남지구 B5블록에서 '청주 동남 파라곤(가칭)' 77~84㎡, 562가구를 분양한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9월 충북 청주시 경동에서 '청주 가경 아이파크5단지' 965가구, 대방건설은 오는 4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M-9블록에서 '내포 1차 대방노블랜드(가칭)' 790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키움증권

애플 테크 성장주 투자 펀드 가입 이벤트

키움증권은 아시아리더스 테크 성장주 목표전환형 펀드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8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마이더스 아시아리더스 테크 성장주 목표전환형 펀드'에 1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추가로 이벤트 종료 후 1개월을 유지하면 최대 3만원 통합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이 펀드는 성장하는 아시아의 테크 업종(IT, 5G, 전기차 등)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이머징아시아 국가별 전망에 따른 자산배분을 하며 목표수익률(6%) 달성시 채권-재간접형으로 전환해 운용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인구나 소득 증가로 소비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혜택도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vin@

금투협 '재개발·재건축 실무' 교육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재개발·재건축 실무' 집합교육과정을 3월 19일부터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운용·관리 관련 실무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실무' 과정은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규, 절차 및 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규제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금감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발간

금융감독원은 공시업무 종합안내서인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부터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공시이해도를 제고하고, 공시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발간해 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기업공시사

항을 ▲유통공시 ▲발행공시(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포함) ▲지분공시 ▲전자공시 등 4개의 테마로 구분했다. 자본시장법, 상법, 자산유동화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관련 제도와 상장법인 특례 등 공시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